

주일 예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인도(Officiator)1부: 박준영 목사 2,3부: 조영찬 목사

	1부 예배 7:00 am	2부 예배 9:00 am	3부 예배 11:00 am
•경배와 찬양 Praise	찬송가 Hymn 365,430장	Rejoice 찬양팀	Rejoice 찬양팀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Officiator		
• 사도 신경 Apostle's Creed	다같이 Together		
합심 기도 Prayer	선교기도(김경봉 선교사님 - 멕시코) Missionary Kim and Ministry		
대표 기도 Prayer	인도자 Officiator	염형국 장로 Elder H. YOM	이형근 장로 Elder H. LEE
봉 헌 Offering	찬송가 Hymn 50장		
찬 양 Anthem	엘리아중창단 Elijah Choir		찬양대 Choir
광 고 Announcement	인도자 Officiator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창세기 Genesis 16:1-5	야고보서 James 3:13-18	
설 교 Sermon	하나님 보다 빠르십니까? Are you faster than God?	지혜의 힘 Power of wisdom	
	박준영 목사 Rev. Mark PARK	한재홍 목사 Rev. J. HAN	
• 찬 송 Praise	찬송가 Hymn 546장	찬송가 Hymn 422장(거룩하게 하소서)	
• 축 도 Benediction	박준영 목사 Rev. Mark PARK	한재홍 목사 Rev. J. HONG	

• 표는 일어서서 (Please Stand!), 찬송은 4부로 (Chorus by Parts)

다음주 기도 2) 송피터 장로 3) 이형기 장로

영어 예배 (English Service) 9:00am/11:00am, EM예배실

수요일예배 Wednesday Service

	어머니비전기도회 10:00 am	수요저녁기도회 8:00 pm
기도 Prayer	한마음 한뜻으로	서경희 집사(다음주: 이은규 집사)
말씀 Sermon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 9:10) 조영찬 목사	생명의 떡을 먹으라 (요 6:25-35) 조영찬 목사

새벽기도회 Early Morning Service

교역자(월-토) 5:30 am

요일	성경본문	찬송가	기도자	주 제
월(30)	수 18:1-10	435	이달우	나머지 지파의 땅 분배
화(1)	수 18:11-28	438	문순제	베냐민 지파의 기업
수(2)	수 19:1-23	342	서명환	믿음으로 일구는 기업
목(3)	수 19:24-51	580	문정원	분배를 마치다
금(4)	수 20:1-9	70	김은희	도피성
토(5)	수 21:1-19	246	염형국	레위 자손의 성읍
주(6)	경건한 마음으로 개인 묵상 (수 21:20-45 성취된 약속)			

주요행사 일정 Event Schedule

일 시	내 용
10.6(주일)	복음암송대회
10.11(금)-12(토)	가을 바자회
10.13(주일)	선교회주일
10.16(수)	심야기도의 밤
10.26(토)	전교인새벽기도회

예배 · 친교 · 주차 위원 Serving for Worship

예배	9월 안내 위원	9월 헌금 위원	주차 위원
1부	김광호	헌금함	
2부	박요한 서명환 (10월)신준호 피터송	이근자 박남숙 서경희 최선주	이정보
3부	박덕수 이재량 (10월)이형근 윤창권	조동성 문재인 유성열 이은정 유지연 김은영	이정보
주방 봉사	이번 주 (9월 29일) 다음 주 (10월 6일)	문화미디어사역원 이형기 차량사역원 윤창권	

목장 칼럼

가치관 혼란의 시대 속에서...

한 밤중에 백화점에 도둑이 들었다. 밤새도록 휘젓고 다녔는데 가져간 상품은 하나도 없었다. 다만 모든 상품의 가격표들을 이리 저리 바꿔 놓았을 뿐이었다. 500\$짜리 카 메라에 5\$짜리 가격표를... 수천\$짜리 모터 보트에 단 돈 100\$짜리 가격표를 바꿔치기에 놓았을 뿐이었다. 다음 날이 밝았을 때 여전히 평소처럼 그 백화점은 개점을 했고 고객들은 매장에서 평범하게 쇼핑들을 했다. 오전시간이 지날 때까지도 직원들도, 고객들도 달라진 점에 대해서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엄청난 횡재를 한 고객도 있을 것이고, 바가지들 쓴 손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도무지 달라진 것에 대해서 눈치를 채지 못한 채 넘어갔다. 정말 이런 일이 있었나요? 묻는다면?

우리들은 보고 듣는 매일의 뉴스속에서 얼마든지 가치 혼란의 뉴스들을 듣고 보고 있지 않는냐고 반문하고 싶다. 온통 사회가 가치 혼란으로 뒤범벅이 되었다. 하루도 이런 류의 뉴스가 없는 날이 없다. 국가의 일급 정보를 단 돈 몇 천\$에 팔아 먹은 군사, 산업 스파이들의 뉴스가 우리를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고 있다. 5살 난 아들을 심하게 폭행해서 죽게 만든 계부의 뉴스를 듣지 못했는가? 그것도 젊은 아빠 게임하는데 방해했다는 이유로 12살 난 딸을 잠자리 사중애 거역했다고 린치를 가해서 감옥에 간 짐승 같은 아빠의 뉴스를 보지 못했는가? 왜 세상이 이렇게도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뒤집어 놓았을까?

이것뿐만 아니다. 수 10년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면서 공들여 쌓아놓은 안정된 사회질서를 삼시간에 무너뜨리는 싸이코 통치자들. 허황된 이론과 철학으로 수십억 지구인들을 비참한 절망으로 몰아놓은 엉터리 사상가들. 평화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이기적 욕심을 채우며 대물림을 하고 있는 인면수심의 독재자들이 여전히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지 않는가?

인생은 죽으면 그만이라는 허황된 유언비어를 만들어 인간 존엄의 가치를 싸구려 쓰레기로 만들어 버린 비관주의자들. 인생은 허무한 것. 살아야 할 가치가 없는 세상. 죽으면 끝이라는 허무주의의 가격표들이 이곳 저곳에 마구 붙어있다. 과연 인간은 이 령게도 험 값의 취급을 받고 살아야 할까? 절대로 아니다. 결코 싸구려가 아니다. 인간의 몸 덩어리 하나가 대수롭게 보이는가? 값을 정말 수 없는 대단한 고가품이다. 얼마나 고귀한 가치인가를 비교해 보자! 자동차 한대에 대략 13,000개의 부품이, 747제트여객기 하나에 3백만개의 부속품이 들어가고, 우주 왕복선에는 5백만개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체는 100조 개의 세포 조직과 25조 개의 적 혈구와 250만 개의 백혈구가 있으며 심장은 하루에 6,768리터의 피를 공급하기 위해 하루에 만 번 이상의 펌핑을 잠시도 쉬지 않고 있다. 허파는 2,340번의 호흡으로 120평방 미터의 산소를 마시며 1,3kg의 수분을 섭취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혀에는 9천 개의 미각 세포가 있어서 맛과 신선도를 즉시 감별해 내는 기능을 갖고, 눈은 10만 가지의 색을 구분할 있지만 보통은 150가지를 구별해 내므로 원근과 입체의 모양을 인식하고 분별함으로 지각을 돕고 충들을 피하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 인체의 핏줄은 총 길이가 12만Km로써 서울 부산간의 거리를 133번, 지구를 3바퀴 돌 수 있다고 하니... 어찌 이런 몸이 싸구려일까? 75억의 인구 중에 같은 지문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니 내 몸은 유일무이한 최고의 걸작품이 아닌가? 이런 고가품도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흩어 버려야 하는 폐기물이 되겠지만...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영혼의 생명의 가치는 또한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나폴레옹의 싸인이 있는 목걸이가 벼룩시장에서는 싸구려로 팔렸지만 고가품으로 둔갑을 했다고 한다. 아무리 흠으로 돌아갈 허무한 몸이지만 그러나 그 몸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가 묻은 인생은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최상, 최대, 최고의 고가품이 아닐 수가 없다.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여기에 영원한 나라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특별한 가격표가 붙은 인생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 고귀한 몸과 생명으로 유일무이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스러운 참 가치관의 삶을 드러야 할 것이다. (2019.9.28.)

교우 사업체
안 내

* 변호사 - 한상준 집사 (718-321-2749)
* 변호사 - 이재숙 교우 (718-461-8000)